

【 국내금융 뉴스 】

심평원 우울증 환자 여성이 남성보다 2배 많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5~2009년 5년간의 우울증*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 43만 5천명이던 우울증 진료인원이 2009년에는 50만 8천명으로 7만명 이상 증가해 연평균 약 1만 8천명(4%)씩 증가한 것으로 발표함.

- 성별로는 여성이 연평균 4.7%, 남성이 연평균 2.7%씩 증가해 여성 환자의 증가폭이 컸으며, 최근 5년간 환자 수를 모두 합하면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약 2.2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 우울증 환자의 총진료비는 2005년 1,212억원에서 2009년에는 1,788억원으로 연평균 10.4% 증가함.

* 우울증은 입증된 예방법은 없으나, 정신과 약물치료로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약물치료와 더불어 정신치료, 인지치료 등 심리사회적인 면들을 개선시켜야 함.

□ 2009년을 기준으로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우울증은 40세 이상의 중년 및 고령층(전체의 55.3%를 차지)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50~59세가 19.6%(106,392명)로 가장 높았으며, 60~69세가 18.1%(98,307명), 40~49세가 17.6%(95,263명)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20대 미만에서는 남성이 높거나 성별에 거의 차이가 없었지만 20대 이후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2.4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들이 임신, 분만, 폐경기를 겪는 동안 호르몬 변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에서 억압받았던 감정들이 우울증상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 연령별로 연평균 증가율은 70대 이상이 13.6%로 가장 높았으며, 20~60대가 약 5% 미만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10~19세의 청소년은 8.2%로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임.

□ 심평원은 “도시화, 핵가족화, 개인주의, 과도한 스트레스 등의 사회 환경과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해 우울증이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며 이에 대한 예방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함.

- 극복방법에 대해서는 약물치료와 더불어 신체적 활동 및 운동이 우울 증상을 감소시키므로 걷기, 조깅, 수영 등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운동을 할 것을 권장함.

(여성우울증, 남성보다 2배 많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책지원실, 4/7)